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박미희** · 이봉주*** · 노혜진**** · 박호준*****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 청년의 성인이행기 지원사업인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희망플랜 사업은 니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니트 문제에 대한 개입을 표방하는 민간차원의 시범사업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지원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플랜 사업은 총 3년의(2016~2018) 사업기간 동안, 청년과 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사업기간 중 1~2차 년도에 해당하는 사업 초기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니트 확률과 향후 구직의향의 사업 전후 차이를 이중차이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사업지역 거주 청년이 비사업지역 거주 청년에 비해 사업수행 이후 향후 구직의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업전후의 니트확률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광의니트 확률이 사업이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광의니트로 분류된 청년 중 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을 제외한 협의니트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로 향후 구직의향이 향상되었다는 점, 문제가 보다 심각한 집단인 협의니트 확률에 미친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지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의 니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했다는 점은 이 사업에서 잠금효과(lock-in-effect)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청년, 니트, NEET, 구직의향, 성과분석, 이중차이분석(DID)

*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에서 2017년에 수행한 『배분의제 1차년도 성과평가 (빈곤)』연구의 일부를 학술지 형식으로 재구성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책임연구원, 제1저자, parkmh@chest.or.kr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bongilee@snu.ac.kr

**** KC대학교 융합산업학부 조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I. 서 론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 같은 다양하고도 중요한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Arnett, 2006). 그러나 최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청년들은 이러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정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급학교로의 진학,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정착, 그리고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구성, 그 과정을 지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청년들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관련된 청년취업 혹은 청년 실업 문제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15~29세 청년실업률이 2000년 이후 7~8%대를 넘나들다 2017년 9.8%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을 보다 현실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포함)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실질적인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15~29세 전체 청년의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에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과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체제와 같은 주요한 사회체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니트란 교육, 고용, 훈련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년실업자를 포함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청년들을 광범위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OECD와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청년 니트에 주목하여 ‘청년보장(Youth Guarantee)’ 등의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청년의 니트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트 청년을 위한 국내의 지원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착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청년니트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I(취약계층지원)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기존의 취성패 프로그램에 니트청년 대상 패

키지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이봉주, 남기철, 노혜진, 박호준, 이다윤, 2015; 박미희, 2017). 니트 청년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인적자본 취약, 가족관계의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기 때문에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여전히 고용중심의 취업지원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니트상태의 청년들이 실업자 통계에서도 잡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중심의 취업지원 대책이 과연 적합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러한 국내의 정책적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전국 11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희망플랜 사업에 주목한다. 이 사업은 14~24세의 초기 청년기에 집중하여 이들의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니트문제에 대한 개입을 표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희망플랜 사업은 14~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니트예방에 주력하고, 20~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는 니트탈출에 주력한다. 이것이 본 연구가 희망플랜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즉 희망플랜은 니트 문제를 전면에 제기한 국내의 거의 유일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과 탈출을 동시에 겨누는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개인적 문제(인적자본의 문제, 심리적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등) 뿐만 아니라,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활동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희망플랜 사업이 우리사회에 새로운 정책모델로써 기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성과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20~24세의 청년에 주목하여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를 향후 구직의향과 니트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와 사업지역 여부에 따른 지역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희망플랜 사업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를 꾀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희망플랜 참여여부에 따라 청년의 향후 구직의향과 니트 가능성이 달라지는가?

연구질문 2 : 사업지역 거주여부에 따라 청년의 향후 구직의향과 니트 가능성이 달라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니트 개념정의

청년 니트 개념은 청년문제가 이슈화된 배경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연구자의 초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청년 니트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교육·고용·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을 의미한다. 그러나 측정의 단계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데, 핵심적 이슈는 두 가지이다. 첫째, 청년이란 누구인가? 즉 청년의 연령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교육·고용·훈련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 포함되는 활동상태는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비경황 상태에 있는 가사·육아 전업자, 장애인, 군복무 등을 니트개념에 포함할 것인가? 실업자도 니트에 포함시킬 것인가? 등의 이슈이다 (박미희, 2017c).

첫째, 청년의 연령범위와 관련하여 하한선으로는 의무교육이수 연령(15/16세)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니트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의 영국에서는 16~18세만을 포함했으나, 2010년 이후 청년의 니트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OECD나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높아진 대학진학률과 정책과의 일관성을 반영해 20대를 모두 포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Bell and Blanchflower, 2011: 242; 나승호 외, 2013). 즉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청년의 상한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니트 개념정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모든 비경황 상태를 니트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OECD의 공식 정의는 문자 그대로 고용, 공식교육(formal education) 및 훈련 상태가 아닌 모든 상태를 니트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식 교육을 포함해 가사·육아, 심신장애, 의무 군복무 등도 모두 니트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니트 집단내의 이질성 문제를 야기한다. 즉 구직 단념자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를 기혼의 가사육아 전업자, 의무 군복무자와 같은 집단으로 여길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이질성은 노동시장에의

정착과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문제, 이들의 사회적 배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Furlong,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니트 개념 정의와 관련된 두 가지 이슈는 서로 관련된다. 예를 들어 OECD의 공식정의와 같이 청년의 연령범위를 좁게 하면 다소 광범위한 니트정의로 인해 야기되는 이질성의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의 연령범위를 넓게 하면 니트 내의 이질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 니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 니트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심리적 요인, 가구요인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의 성별과 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들은 청년 니트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성별에 따라 니트 확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니트 가능성의 관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Robson & Team, 2008) 국내연구 결과만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니트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재량, 2006; 남재량, 2011;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김기현, 남기곤, 2008; 윤혜준 민숙원, 유한구, 금예진, 2017). 그러나 1995년 이후 니트 상태의 청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량, 2006; 남재량, 2011). 연령에 따라서도 니트 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니트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20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니트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20대 초중반까지는 니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20대 후반 이후 결혼, 출산과 함께 니트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니트 중에서 만 3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니트의 고령화 현상이 제기되고 있다(남재량, 2011).

둘째, 학력, 훈련프로그램, 학교중퇴 여부 등 청년의 인적자본도 니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박미희, 2017b). 외국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의 니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found, 2012; Genda, 2007; Kelly & McGuinness, 2013; Shinozaki, 2012; Styczynska, 2013). 우리나라 연

구에서도 고졸 이하의 저학력의 경우 청년의 니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고학력자 집단에서 청년 니트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채창균 외, 2008; 나승호 외, 2013). 청년들의 일 경험이나 중퇴·휴학 여부도 청년 니트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했더라도 의미를 찾지 못해 휴학·중퇴를 하는 경우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인해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 니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순, 변정현, 황여정, 宮本みち子, 2013;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 2010).

셋째, 개인의 심리적 특성 역시 니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에 정신건강이나 행동 상의 어려움을 겪으면 청년기에 니트가 될 확률이 더 높고(Rodwell et al., 2018; Goldman-Mellor et al., 2016; Nardi et al., 2013), 반대로 높은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은 니트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란, 2015; Simões, Meneses, Luís & Drumonde, 2017).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청년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Noh & Lee, 2017), 반대로 직업포부나 진로태도 및 성숙도는 청년층의 사회 부적응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ladwell, Popli & Tsuchiya, 2016; 김민정, 조궁호, 2009).

넷째, 가구 특성 역시 청년이 니트가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가구소득은 니트 가능성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oh & Lee, 2017; 이현성, 2010; 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Robson & Team, 2008). 그러나 Genda(2006)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고소득과 저소득 가구의 청년이 비노동을 선택하는 소득의 U자형 효과(U-shape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도 청년의 니트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가 무직이거나(Schoon, 2016; Zuccotti & O'Reilly, 201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자녀가 니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그러나 역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낮으면 청년기의 자녀가 구직활동을 할 경향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종성, 이병훈, 2012). 이러한 결과는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가구특성이 청년의 니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청년 니트 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

청년 니트가 사회적으로 더 빠르게 주목을 받은 외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었다(Kluve et al., 2016; Eichhorst & Rinne, 2017). 대표적으로 청년 니트에 대한 EU차원의 고용·교육 프로그램인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의 초기 성과를 진단한 Eichhorst와 Rinne (2017)에 따르면,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실업니트(unemployed NEET) 청년에 대한 지지 체계로는 일부 작동하지만 비경활 니트(inactive NEET)를 고용, 훈련, 교육체계로 재편입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즉 유럽청년보장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비경활 니트 청년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Dixon과 Crichton(2016)은 뉴질랜드에서 16~17세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YS:NEET(Youth Servic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했다. 행정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니트 청년의 학업이수율은 약간 증대되었으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영국에서 시행된 16~24세 청년 NEET 대상의 고용 증진 프로그램(employment enhancement programme)의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실험에 참여한 24명의 청년 니트들은 자기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Seddon, Hazenberg & Denny, 2013).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 니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사업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청년 니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한 경우도 전무하다.¹⁾ 다만 일부 연구에서 청년니트 위험군이나 장기실업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청년 니트 위험군의 사회적응력이 높아지고(김병숙, 김소영, 박선주, 2007;

1) 청년 니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청년 실업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승곤, 2007; 한성민, 문성호, 이숙중, 2015; 이병희, 김현중, 김혜원, 박혁, 2014; 전병유 외, 2012). 이들 연구는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아카데미 등)의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 촉진정책(청년고용촉진장려금,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등)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이철인, 2016; 양자윤, 정희정, 최석현, 2016; 이규용 외, 2016).

정미경, 김수란, 2013), 장기실업 청년들에 대한 직업상담 프로그램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병숙 외, 2007).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청년 니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관련 성과평가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외에서는 청년니트 지원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업이수율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단기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비경황상태의 니트를 활성화하거나 고용상태로 전환시키는 효과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청년 니트 지원사업 ‘희망플랜’

‘희망플랜’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청년 니트 문제를 전면에 제기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전체적인 사업 총괄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담당하며, 각 지역별 공모를 통해 11개 사회복지관이 각 지역센터를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17년 6월 현재 11개 지역²⁾의 14~24세 청년 1,147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청년 니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실업과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주로 바라보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기현, 2017; 서미, 정익중, 이태영, 이지혜, 2017). ‘희망플랜’ 사업은 기존의 단편적·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니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가족·지역사회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개인에게는 사례관리와 상담을 기초로 맞춤형 직업교육 및 훈련,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성인이행기 초기(13~18세)에는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계발, 학업 지원 등을 통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성인이행기 후기(19~24세)에는 상급학교 진

2) 11개 사업지역은 서울(은평, 성북, 신림)3개소, 경기(부천, 광명) 2개소, 강원 원주 1개소, 대구(달서, 중구) 2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전북 전주 1개소이다.

학이나 교육훈련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청년이 속한 가족에게는 가족기능강화 및 부모코칭을 제공한다. 청년이 직면한 문제는 원 가족에게서 비롯된 문제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년의 변화를 위해서도 가족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의 가족에 대해서도 자원연계와 취업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모교육·가족캠프 등을 통해 가족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청년이 속한 지역사회에서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자원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지역조직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 니트 문제의 해결이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다. 희망플랜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11개 센터가 중심이 되어 복지기관, 교육기관, 니트 관련 NGO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자원 및 후원을 개발하고 청년들에게 연계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니트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 등 청년 니트를 위한 적극적인 옹호 활동 역시 진행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설계

본 연구는 희망플랜 사업에서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직접 수집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다. 이 조사자료에는 희망플랜 사업참여자의 변화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한 조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비교집단은 사업지역 내 프로그램 비참여 집단이고, 두 번째 비교집단은 비교지역의 비참여집단이다. 비교지역은 사업지역과 유사한 특성(지역규모 및 빈곤지역여부)을 지닌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서울 동대문구, 전북 익산시, 강원 홍천군, 대구 수성구, 부산 사하구, 경기 군포시가 그것이다.

사업진행 이전에 이 사업의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설계(안)이 마련되었다(표 1). 전체 조사 대상은 지역내 14-24세의 청년이다. 17개 조사지역에서 600명씩 총

10,200명을 조사할 계획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패널분석이 가능하도록 패널 유지율을 최소 50%로 계획하였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청년자료(20-24세)이다. 표 2는 청년 응답자의 지역별·연도별·희망플랜 프로그램 참여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20-24세 청년은 기초선 조사에 3,031명, 1차 추적조사에 4,183명이며, 이 중 희망플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기초선 조사에서 159명, 1차 추적조사에서 370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설계 개요

구분	내용
표집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지원 수급자, 일반가구의 14-24세 청소년 및 청년
예상 표본 수	선정된 17개 지역 내 600명, 총 10,200명
표본 추출	지역별 유의할당 및 임의추출
사례 유지	지역별 600사례 중 50%는 종단(longitudinal) 조사 실시 (기초선 조사 1회, 추적조사 2회)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대인 면접조사
조사 기간	약 2개월 기초선 조사(2016.6~8월), 1차 추적조사(2017.8~10월), 2차 추적조사(2018.10-11월 예정)

표 2

청년 응답자의 지역·집단·연도별 분포

(단위: 명, %)

지역	시/구	구분	기초선(2016)			1차 추적조사(2017)		
			응답자	희망플랜 참여자	희망플랜 비참여자	응답자	희망플랜 참여자	희망플랜 비참여자
서울	관악	사업 지역	204 (6.7)	5 (2.5)	199 (97.5)	257 (6.1)	32 (12.5)	225 (87.5)
서울	은평		162 (5.3)	16 (9.9)	146 (90.1)	222 (5.3)	39 (17.6)	183 (82.4)
서울	성북		174 (5.7)	18 (10.3)	156 (89.7)	200 (4.8)	35 (17.5)	165 (82.5)
경기	광명		131 (4.3)	11 (8.4)	120 (91.6)	253 (6.0)	20 (7.9)	233 (92.1)
경기	부천		174 (5.7)	29 (16.7)	145 (83.3)	247 (5.9)	35 (14.2)	212 (85.8)
전북	전주		149 (4.9)	10 (6.7)	139 (93.3)	242 (5.8)	28 (11.6)	214 (88.4)
광주	북구		125 (4.1)	13 (10.4)	112 (89.6)	197 (4.7)	39 (19.8)	158 (80.2)
대구	중구		124 (4.1)	9 (7.3)	115 (92.7)	196 (4.7)	41 (20.9)	155 (79.1)
대구	달서		201 (6.6)	19 (9.5)	182 (90.5)	309 (7.4)	36 (11.7)	273 (88.3)
부산	진구		318 (10.5)	15 (4.7)	303 (95.3)	250 (6.0)	35 (14.0)	215 (86.0)
강원	원주		245 (8.1)	14 (5.7)	231 (94.3)	254 (6.1)	30 (11.8)	224 (88.2)
서울	동대문	비교 지역	191 (6.3)		191 (100)	280 (6.7)		280 (100)
경기	군포		153 (5.0)		153 (100)	278 (6.6)		278 (100)
대구	수성		165 (5.4)		165 (100)	268 (6.4)		268 (100)
전북	익산		153 (5.0)		153 (100)	346 (8.3)		346 (100)
부산	사하구		236 (7.8)		236 (100)	240 (5.7)		240 (100)
강원	홍천		126 (4.2)		126 (100)	144 3.4		144 (100)
총 계			3,031(100)	159(5.2)	2,872(94.8)	4,183(100)	370(8.8)	3,813(91.2)

3. 변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희망플랜 사업의 청년 대상 성과지표인 개인의 니트 여부와 향후 구직의사이다. 희망플랜 사업은 청년의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니트 가능성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성과측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청년이 니

트 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니트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구직의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구직의향의 변화도 확인한다.

청년의 니트여부는 본 연구에서 규정한 니트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니트란, 취업, 교육, 직업훈련 상태에 있지 않으며 당장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을 할 수 없는 비경황(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기혼의 가사육아 전담자)상태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비경황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부분적으로 니트에 편입시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과 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청년은 니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취업에는 근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 인턴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육에는 정규교육 기관 및 입시·취업을 위한 학원통학 등이 포함되었다.

니트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실업자), 교육상태에 관한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도 니트에 포함한다.³⁾ 다만,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따로 조사되어 있지 않고 취업준비(미통학)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직업훈련 기간 변수를 활용한다. 즉 최근의 직업훈련기간이 조사기간과 일치하는 경우 현재 직업훈련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⁴⁾

둘째, 일반적으로 니트를 판별할 때 활용되는 변수는 ‘현재 활동상태’이다. 이 경우 현재 활동상태가 학교재학 상태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재학중이지만 현재 본인의 주된 활동이 구직활동, 취업준비, 심지어 쉬었음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본인이 응답한 주된 활동에 따라 니트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대상자의 응답과 관계없이 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니트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활동상태’를 중심으로 니트를 판별하는 것이 현실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라

3) 니트에 실업자를 포함할지 여부는 니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박미희, 2017c). 본 연구에서는 교육·고용·훈련상태가 아니라는 니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주목하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니트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 중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청년은 약 6%정도였다.

4) 희망플랜 서베이조사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직업 훈련의 시작 년월과 종료 년월이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변수를 활용하여 서베이 조사기간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는 것이 형식적일지라도 교육체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고용·복지의 사회체계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니트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지점을 감안하여 니트를 광의니트와 협의니트로 구분한다. 광의니트는 '현재활동상태'만을 고려하여 앞서 규정한 니트의 개념정의에 따라 구분한다. 한편 광의니트 중에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비니트로 재분류하고 이를 협의니트로 정의한다.

2) 독립변수

희망플랜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직접적인 프로그램 효과이고, 둘째는 사업지역 내에서 희망플랜 사업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은 프로그램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역효과에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활동(통합사례회의, 조례 제정, 지역사회 청년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델의 독립변수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이고, 지역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의 독립변수는 사업지역 거주 여부이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니트 결정요인 연구에서 밝혀진 인구학적 특성, 가구특성, 인적자본 특성, 심리적 특성을 통제한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을 대표하는 성별, 연령을 통제한다. 둘째, 청년의 니트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을 통제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가구소득, 가구유형,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근로여부이다. 가구소득의 경우 청년이 응답한 가구소득 정보의 부정확성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의 상관성 문제로 인해, 본 분석에서는 청년이 인지한 가구의 경제상태를 통제한다. 셋째, 니트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청년의 인적자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 경험이나 직업준비, 그리고 휴학 여부를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이 청년의 니트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니트여부	니트(=1) / 그 외(기준) 1) 광의니트 : ‘현재활동상태’ 기준 고용, 교육, 훈련 상태가 아닌 상태 2) 협의니트 : 광의니트 중,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학교재학변수로 교육상태 재조정)
	프로그램 참여여부	프로그램 참여(=1) / 미참여(기준)
독립변수	사업지역 거주여부	사업지역 거주(=1) / 비사업지역 거주(기준)
	성별	여성(기준) / 남성
통제변수	연령	만 나이
	교육수준	중졸이하(기준) / 고졸이하 / 대재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가구 / 일반가구(기준) / 무응답
	가족구성	부모동거(기준) / 한부모 / 조손 / 기타
	주관적 경제상태	낮음(기준) / 보통 / 높음 / 무응답
	아버지 근로여부	비근로(기준) / 근로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미만(기준) / 고졸 / 대재이상 / 무응답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기준) / 있음 / 무응답
	직업훈련 경험	없음(기준) / 있음 / 무응답
	휴학경험	없음(기준) / 있음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 13문항의 평균(1점~4점)

4.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1) 분석모형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청년 개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사업전후의 차이를 이중차이분

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한다. 본 연구는 이를 프로그램 효과라고 명명한다. 둘째, 희망플랜 사업은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까지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기에, 사업지역과 비교지역의 사업전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역효과라고 명명한다. 지역효과 또한 이중차이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분석모형은 두 가지이다. 모형 1(통제모형)은 이중차이 분석을 위한 기본 변수(집단, 시점, 집단과 시점의 상호작용항)와 지역더미,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결합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수행한 것이다. 모형 2(PSM 모형)는 사업참여자 와 사업비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PS(propensity score) 매칭을 통해 비교집단을 재설정 한 뒤, PS매칭에 사용된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것이다.

2) 분석 방법

(1) 이중차이추정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공간적인 변이를 확인하는 방법과 시간적인 변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적인 변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추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작위 할당의 통제집단 구성을 통한 실험설계(Random Controlled Trial)이다. 그러나 시간적·물질적 한계로 인해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사회실험은 쉽게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시간적 변이를 활용하여 전후 차이를 차분하는 이중차이 추정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정의룡, 2014; 박상현, 김태일, 2011; Eissa & Liebman, 1996; Ellwood, 2000). 이중차이추정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집단 간 특성으로 인해 야기된 사전적 차이를 차분해 준다는 점에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는 2개 시점 자료를 결합(pooling)한 후 다음의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2개 시점 자료에는 일부 패널이 있으나 반복횡단자료(repeated cross section data)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단, 일부 패널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 내 상관을 고려하여 조정된 표준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한다.

$$Y_{it} = \beta_0 + \beta_1 dT2017_t + \beta_2 dTG_{it} + \beta_3 (dT2017_t \times dTG_{it}) + u_{it}$$

위의 식에서 $dT2017_t$ 은 2017년을 나타내는 시기더미이며, dTG_{it} 는 프로그램 참여(혹은 사업지역)를 나타내는 더미이다. 마지막으로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와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β_3)는 프로그램집단의 2017년 프로그램 성과를 의미하며, 아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중차이 분석의 핵심 회귀계수이다.

표 4

회귀계수로 살펴본 이중차이의 크기

집단	T1 (2016년)	T2 (2017년)	전후차이	이중차이
프로그램집단	$\beta_0 + \beta_2$	$\beta_0 + \beta_1 + \beta_2 + \beta_3$	$\beta_1 + \beta_3$	β_3
비교집단	β_0	$\beta_0 + \beta_1$	β_1	

(2)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이중차이추정법에서는 프로그램 집단과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이를 위해 최근의 연구에서는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Matching)를 추정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하곤 한다(정의룡, 2014; 박상현, 김태일, 2011). 성향점수매칭은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큰 차이가 존재할 때, 일반적 회귀모형에 비해 잘못된 모형 설정으로 인한 편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희망플랜 참여자로 구성된 프로그램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비교집단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로 인해 프로그램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성향점수매칭은 프로그램집단의 선택편의의 상당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⁵⁾ 모형2는 프로그램집단과 매칭을 한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단순 이중차분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집단과 가장 가까운

5) 성향점수추정 역시 관찰 가능한 변수를 활용하여 두 집단의 이질성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관찰 불가능한(unobservable factor) 요인으로 인한 집단 간 차이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Angrist & Pischke, 2009).

성향점수를 가지는 비교집단을 1:2 비율로 매칭하였다. 이는 기초선조사의 경우 프로그램 집단의 사례수가 200케이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성과변수가 이분변수일 경우, 일반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혹은 프로빗 등)이나 선형확률모형이 주로 사용된다. 이 때,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이중차이모형의 핵심인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의 정확성과 신뢰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Ai and Norton, 2013: 129; 박미희, 2017a 재인용), 본 분석에서는 정확한 회귀계수 산출이 가능한 선형확률 모형을 활용한다.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5는 분석대상 청년의 개인특성을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조사대상 청년은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참여자와 사업 비참여자로 크게 구분되며, 사업비참여자는 사업지역 비참여자와 비교지역 비참여자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조사대상자 중 사업 참여자는 529명, 사업지역 비참여자는 4,105명, 비교지역 비참여자는 2,580명이다. 각 집단별 개인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업참여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크게 높았고, 교육수준도 비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휴학경험은 사업참여자에 비해 비교지역의 비참여자에게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경험은 사업참여자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자아존중감은 희망플랜 참여자에게서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개인 특성 :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심리적 특성

(단위: %)

		희망플랜 참여자		비참여자			
				사업지역		비교지역	
		기초선 (2016)	1차 추적 (2017)	기초선 (2016)	1차 추적 (2017)	기초선 (2016)	1차 추적 (2017)
성별	여성	64.8	63.0	48.2	45.9	48.8	48.6
	남성	35.2	37.0	51.8	54.1	51.2	51.4
연령	18세	0.0	0.5	0.0	0.3	0.0	0.1
	19세	37.1	24.9	29.2	27.6	29.3	25.6
	20세	24.5	25.7	22.4	20.3	25.3	21.2
	21세	18.2	18.6	15.9	15.8	18.4	15.8
	22세	18.2	15.1	16.5	12.5	11.8	16.9
	23세	1.9	14.1	16.1	17.4	15.2	14.5
	24세	0.0	1.1	0.0	6.1	0.0	5.8
	중졸이하	3.8	2.7	0.8	0.6	0.8	0.7
교육수준	고졸이하	31.4	27.0	22.5	18.1	14.6	10.9
	대재이상	64.8	70.3	76.7	81.3	84.7	88.4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15.7	13.0	16.2	25.8	23.1	25.1
	있음	45.3	49.5	52.6	46.4	55.6	56.2
	무응답	39.0	37.6	31.2	27.7	21.3	18.7
직업훈련 경험	없음	89.3	82.7	93.6	95.4	93.0	94.6
	있음	10.7	17.3	6.4	4.5	7.0	5.2
	무응답	0.0	0.0	0.0	0.1	0.0	0.2
휴학 경험	없음	44.0	46.2	49.1	52.5	60.1	61.2
	있음	17.0	16.2	19.7	19.8	18.7	20.1
	무응답	39.0	37.6	31.2	27.7	21.3	18.7
자이준중값(평균)		2.82	2.91	2.98	2.96	2.98	3.09
총 사례수(명)		159	370	1,848	2,257	1,024	1,556

표 6은 분석대상자의 가구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사업참여자자와 비참여자자의 가구특성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희망플랜의 사업대상자가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 청년의 가구특성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이 전체 사업참여 청년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참여 청년의 70%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에 해당했으며, 본인이 인지한 가구의 경제적 상태도 대부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

표 6

분석대상자 가구특성

(단위: %)

		희망플랜 참여자		비참여자			
				사업지역		비교지역	
		기초선 (2016)	1차 추적 (2017)	기초선 (2016)	1차 추적 (2017)	기초선 (2016)	1차 추적 (2017)
기초생활 수급여부	일반가구	20.8	30.0	80.2	85.1	84.4	89.3
	수급가구	78.6	69.5	19.5	14.8	15.4	10.4
	모름/무응답	0.6	0.5	0.3	0.1	0.2	0.3
가족구성	부모님동거	28.9	34.3	73.4	77.4	80.0	84.7
	한부모가족	61.6	57.0	22.1	16.9	16.4	12.2
	조손가족	2.5	3.8	2.3	1.6	1.4	0.6
	기타	6.9	4.9	2.3	4.2	2.2	2.5
	낮음	76.1	73.2	35.8	28.2	30.1	20.6
주관적 경제상태	보통	23.3	24.9	51.9	58.0	53.2	59.4
	높음	0.0	1.6	12.3	13.7	16.7	19.8
	무응답	0.6	0.3	0.0	0.0	0.0	0.1
아버지 근로여부	비근로	59.1	57.0	23.3	19.3	17.2	12.9
	근로	40.9	43.0	76.7	80.7	82.8	87.1
	고졸미만	7.5	5.1	3.6	3.5	4.5	3.9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25.8	31.6	47.8	44.1	50.8	42.9
	대제이상	10.1	11.1	28.6	34.9	26.7	41.6
	해당없음	55.3	51.6	19.5	16.7	13.6	9.8
	무응답	1.3	0.5	0.5	0.8	4.5	1.8
총 사례수(명)		159	370	1,848	2,257	1,024	1,556

준도 다른 두 집단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근로하지 않은 청년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청년의 개인 및 가구특성을 종합해보면, 사업참여 청년이 비참여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교육수준이나 아르바이트 경험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차이가 청년의 니트 확률이나 향후 구직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이후의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성과지표의 차이

표 7은 희망플랜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인 니트비율이 세 개의 청년집단들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것이다. 먼저 광의니트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초선 조사(2016년)에 비해 1차 추적조사(2017년)에서 광의니트 비중이 20.3%에서 18.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교지역과 사업지역의 사업비참여 집단에서는 광의니트 비율이 모두 낮아진 반면, 희망플랜 참여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자의 광의 니트 비율은 23.9%(기초선 조사)에서 27.0%(1차 추적조사)로 3.1%p 증가하였다.

표 7

집단구분에 따른 니트비율

(단위: %)

	기초선 조사(2016년)				1차 추적조사(2017년)			
	비교 지역	사업지역 비참여	희망플랜 참여	소계	비교 지역	사업지역 비참여	희망플랜 참여	소계
광의니트	19.3	20.5	23.9	20.3	17.4	17.9	27.0	18.5
협의니트	5.9	10.0	16.4	8.9	6.0	8.7	15.7	8.3
비중격차 (광의니트-협의니트)	13.5	10.5	7.5	11.3	11.4	9.1	11.4	10.2
총 사례수(명)	1,024	1,848	159	3,031	1,556	2,257	370	4,183

한편 광의니트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을 모두 비니트로 재분류한 협의니트를 보면, 평균적으로 기초선 조사(2016년)에 비해 1차 추적조사(2017년)에서 협의니트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9%→8.3%). 그러나 협의니트의 감소는 비교지역 보다 사업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희망플랜 참여자 집단의 협의니트 비중이 16.4%에서 15.7%로 감소하였고, 사업지역의 비참여 집단에서도 그 비중이 10.0%에서 8.7%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희망플랜 참여자의 경우 광의니트 비중은 증가하고 협의니트 비중은 감소하여 두 개념상의 차이로 인한 비중격차는 다른 집단과 달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5%→11.4%).

표 8은 기초선 조사와 1차 추적조사에 모두 응답한 패널대상자 1,405명을 대상으로 조건부 전이확률을 확인한 결과이다. 먼저 광의니트 전이확률을 살펴보면, 니트 진입

를(2016년에는 니트가 아니었으나 2017년에 니트가 된 청년) 평균은 14.8%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플랜 참여자의 경우 그 확률이 24.8%나 되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 유지율은 평균 33.8%로 3명 중 한명이 니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트 유지확률도 희망플랜 참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6년에 니트였던 청년이 그 다음해에 니트상태를 벗어날 확률은 평균 66.2%로 나타났는데, 니트 탈출확률은 비교지역 청년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사업 참여 청년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

니트 상태변화(조건부 전이확률)

(단위: %)

니트상태 변화(%)	협의니트				광의니트			
	비교 지역	사업 지역 비참여	희망플 랜 참여	소계	비교 지역	사업 지역 비참여	희망플 랜 참여	소계
진입률	5.1	7.0	15.4	7.0	13.3	14.0	24.8	14.8
유지율	43.5	33.8	36.4	36.2	32.5	33.3	43.3	33.8
탈출률	56.5	66.3	63.6	63.8	67.5	66.7	56.7	66.2
총 사례수(명)	455	794	139	1,405	455	794	139	1,405

주: 조건부 전이확률은 패널대상자에 한정하여 계산함

한편 협의니트 전이확률은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지역 청년의 경우 협의니트 진입률은 가장 낮으나(5.1%), 니트 상태이후 니트를 탈출하지 못하고 니트 상태에 머무르는 확률이 높았다(43.5%). 반면 희망플랜 참여자의 경우 니트 진입률은 가장 높았으나(15.4%), 니트 탈출률은 비교지역의 청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63.6%).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사업 비참여자의 경우에는 니트 진입률은 7.0%로 중간 정도였으나 니트 탈출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6.3%). 이는 협의니트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 사업지역에서 니트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9는 향후 구직의향의 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것이다. 희망플랜 사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니트 확률을 낮추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과정적 변화로써 향후 구직의향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직의향이 구직활동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취업으로 연결되어 니트상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9를 보면, 희망플랜 참여자 중에서 구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6년 61.6%에서 2017년 70.5%로 크게 증가하였고 구직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크게 줄어들었다(17.6%→8.1%). 반면 비교지역 청년의 경우 구직의향은 다소 상승했지만(62.7%→67.9%) 구직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3%→13.6%). 구직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지역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에게서 모두 감소한 것과는 상이한 경향이 확인된다.

표 9

향후 구직의향

(단위: %)

		사업지역				비교지역	
		참여자		비참여자			
		기초선 (2016)	1차 추적 (2017)	기초선 (2016)	1차 추적 (2017)	기초선 (2016)	1차 추적 (2017)
향후 구직의향	없음	17.6	8.1	11.9	10.4	13.3	13.6
	있음	61.6	70.5	56.3	63.0	62.7	67.9
	무응답	20.8	21.4	31.8	26.5	24.0	18.6
총 사례수(명)		159	370	1,848	2,257	1,024	1,55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트의 개념정의에 따라 집단간 니트 비중과 니트상태로의 진입률·탈출률·유지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니트 정의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니트 정의를 다양화하고 이런 다양한 개념정의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다른 집단과는 달리 희망플랜 사업 참여자에게서 혐의니트 비중이 감소한 반면 광의니트 비중은 증가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최소한 사회체계 밖에 있는 가장 열악한 상태의 니트 청년을 교육체계내로 포함시킨 성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사업 참여 청년이 니트 상태를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여전히 광의 니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 사업에서 잠금효과(lock-in effect)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성과분석 결과

희망플랜 사업의 성과분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비참여 청년의 사업 전후의 차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효과 분석과, 사업지역과 비교지역의 사업 전후의 차이를 확인하는 지역효과 분석이 그것이다.

1) 프로그램효과 분석

표 10과 표 11은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특성, 인적자원 특성, 심리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모형2는 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참여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교집단을 PS 매칭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여 이중차이모형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과정적 지표로써 향후 구직의향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표 10을 보면, 희망플랜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자에 비해 사업참여 이후 향후 구직의향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개인의 니트 가능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광의니트 가능성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표 11을 보면, 희망플랜 참여자 집단의 경우 미참여자 집단에 비해 사업시행 이후 광의니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을 니트에서 제외한 협의니트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니트비중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희망플랜 참여자의 협의니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감소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체 조사자 중 참여자 비중이 낮은 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1차 추적조사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비중은 전체 조사자의 9%에 불과했는데, 이와 같은 비중의 차이로 인해 참여자에 대한 결과가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향후 구직의향은 높아졌으나 니트 확률도 다소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

향후 구직의향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 선형확률모형 분석결과(DID)

종속변수 : 향후 구직의향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PSM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집단 (기준: 희망플랜 미참여)	참여	-0.03	(0.038)	-0.02	(0.046)
시점(기준: 1차년도)	2차년도	0.03	(0.011) **	0.01	(0.030)
시점*집단	2차년도* 참여	0.05	(0.041)	0.10	(0.051) +
상수		0.88	(0.124) ***	0.88	(0.049) ***
R^2		0.0544		0.0629	
F		5.16***		3.73***	
N		5382		1090	

주: 반복 측정된 개인의 계열 상관을 고려하여 조정된 표준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제시함. 지역더미와 모형1의 통제변수는 분석에 투입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음 (통제모형의 전체 분석결과는 부표 1에 제시함). 모형2는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비교집단을 재구성하여 분석한 것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매칭은 1:2로 하였음
*** $p < .001$, ** $p < .01$, * $p < .05$, + $p < 0.1$

표 11

니트 확률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 선형확률모형 분석결과(DID)

	종속변수: 광의니트 확률		종속변수: 협의니트 확률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PSM모형)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PSM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참여 (기준: 미참여)	-0.03 (0.033)	-0.06 (0.044)	0.03 (0.025)	0.00 (0.037)
2차년도 (기준: 1차년도)	-0.02 (0.010) *	-0.10 (0.029) ***	0.00 (0.006)	-0.02 (0.023)
2차년도* 참여	0.08 (0.039) *	0.14 (0.050) **	0.02 (0.029)	0.02 (0.042)
상수	0.26 (0.137) +	0.24 (0.053) ***	-0.10 (0.075)	0.12 (0.041) **
R^2	0.1099		0.0276	
F	17.84***		2.35***	
N	7,214		1,495	

주: 표 10의 표주와 동일

*** $p < .001$, ** $p < .01$, * $p < .05$, + $p < 0.1$

2) 지역효과 분석

표 12와 표 13은 동일한 모형으로 희망플랜 사업의 지역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향후 구직의향에 대한 지역효과를 분석한 표 12를 보면,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향후 구직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비교지역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그램 효과에서 나타난 광의니트 확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지역효과 분석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13). 즉 사업지역의 청년들이 사업이후 광의니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비교지역 청년들에 비해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협의니트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지역 거주 청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2

향후 구직의향에 대한 지역효과: 선형확률모형 분석결과(DID)

종속변수 : 향후 구직의향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PSM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집단 (기준: 희망플랜 미참여)	참여	-0.04	(0.034)	-0.02	(0.111)
시점(기준: 1차년도)	2차년도	0.01	(0.017)	-0.05	(0.044)
시점*집단	2차년도* 참여	0.04	(0.022) +	0.13	(0.052) *
상수		0.91	(0.125) ***	0.89	(0.101) ***
R^2		0.0547		0.0617	
F		5.3***		3.62***	
N		5,382		1,090	

주: 표 10의 표주와 동일. 단, 통제모형의 전체 분석결과는 부표 2에 제시함

*** $p < .001$, ** $p < .01$, * $p < .05$, + $p < .1$

표 13

니트 확률에 대한 지역 효과: 선형확률모형 분석결과(DID)

	종속변수: 광의니트 확률		종속변수: 협의니트 확률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PSM모형)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PSM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참여 (기준: 미참여)	0.01 (0.030)	-0.10 (0.101)	0.00 (0.021)	-0.08 (0.086)
2차년도 (기준:1차년도)	-0.02 (0.016)	-0.09 (0.044) *	0.01 (0.008)	-0.01 (0.031)
2차년도* 참여	0.01 (0.019)	0.05 (0.052)	-0.01 (0.011)	-0.01 (0.039)
상수	0.25 (0.138) +	0.32 (0.086) ***	-0.09 (0.076)	0.21 (0.076) **
R^2	0.1091	0.0215	0.2805	0.0176
F	18.09***	1.94*	21.35***	2.6
N	7,214	1,495	7,214	1,495

주: 표 12의 표주와 동일

*** $p<.001$, ** $p<.01$, * $p<.05$, + $p<.1$

V. 결 론

본 연구는 취약계층 청년의 성인이행기 지원사업인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희망플랜 사업은 청년 니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과를 초기부터 파악하는 것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책화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전체 3년의 사업기간 중 1차와 2차에 해당하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초기 성과를 이중차이모형(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성과지표로는 개인의 니트 확률과 향후 구직의향을 살펴 보았다. 희망플랜 사업의 최종 성과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니트 확률이 감소하였는가로 가늠이 될 것이지만, 개인이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니트 상태로 진입하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의향은 매우 중요한 과정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지표로 향후 구직의향을 활용하였으며, 니트 개념 또한 협의와 광의로 다양화함으로써 이 사업의 성과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구직의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비교지역 청년에 비해 사업시행 이후 향후 구직의향이 증가하였다. 물론 프로그램 효과보다 지역효과가 통계적으로 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향후 구직의향이 사업지역과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광의니트 확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광의 니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셋째, 그러나 상기의 부정적인 프로그램 효과는 협의니트 확률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니트는 광의니트로 분류된 청년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을 비니트로 다시 분류한 것으로, 학교-노동시장-복지체계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핵심적인 '체계 밖 청년'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심 니트의 비중이 비교지역의 경우 사업이후에 증가하였으나, 사업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물론 감소의 정도가 미미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해당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실천적 함의로서, 본 연구는 민간 영역에서 청년니트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며 기획한 희망플랜 사업에 주목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는 아직 가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흐름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향후 구직의향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니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문제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협의니트, 즉 학교-노동시장-복지체계의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청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니트 확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해당사업의 방향과 구성은 유지하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함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청년니트 관련 사업의 방향성과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해당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광의니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광의니트 상태에 관한 조건부 전이확률

분석 결과, 희망플랜 참여자의 경우 광의니트 상태로의 진입률과 유지율이 가장 높은 반면 탈출률은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업에서 잠금효과(lock-in-effect)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잠금효과란 일반적으로 훈련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을 방해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이상준, 2012), 희망플랜 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당장의 취업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희망플랜 사업이 당장의 취업보다는 ‘괜찮은’ 일자리, 니트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광의니트로의 진입률이 높은 것은 사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업초기에 니트 청년을 직접 발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례를 지속하는 것은 사업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지율이 높고 탈출률이 낮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지 1년 반에 불과하고 그 동안 당장의 취업보다는 니트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희망플랜 사업에서 잠금효과가 존재한다고 결론짓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잠금효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니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잠금효과를 염두에 둔 면밀한 기획의 필요성을 발견한 것 역시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 후속연구에서는 잠금효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아우르는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론적·학문적 함의로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유사집단설계에 기반하여 사업 참여집단뿐만 아니라 비참여집단, 나아가 비교지역을 설정했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통제, 적절한 연구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체계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의의이다. 이러한 시도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성과기반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이 향상되는데 본 연구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GOVP1200810656). 서울: 노동부.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패널 위킹페이퍼**, 17(8), 1-27.
- 김민정, 조궁호 (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47-62.
- 김수란 (2015). MIMC 모형을 활용한 청년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심리 및 개인역량 차이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0(3), 123-147.
- 김승곤 (2007). 대학 미진학 청년층의 재학 중 직업훈련의 임금 및 취업 효과. **사회과학논총**, 23(1), 27-44.
- 김병숙, 김소영, 박선주 (2007). 청년장기실업자의 증상중심 대응전략 결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0(3), 139-147.
- 김종성, 이병훈 (2012). 대졸청년층의 비경활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움 자료집**, 235-253.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노동리뷰**, 17(4), 97-110.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연구보고 15-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2013).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BOK 경제리뷰 Discussion Paper Series No.2013-15). 서울: 한국은행.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징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6(4), 22-33.
- 남재량 (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11(3), 29-40.
- 남재량 (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12(4), 39-54.
- 남재량, 김세움 (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박미희 (2017a).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청년의 NEET 확률에 미친 영향: 교육·노동시장·복지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3), 69-98.
- 박미희 (2017b).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17(3), 1-44.

- 박미희 (2017c). **OECD국가의 청년NEET 결정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상현, 김태일 (2011).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23.
- 서미, 정익중, 이태영, 이지혜 (2017).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심리·정서적 지원 중심** (청소년상담연구 No. 199).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양지윤, 정희정, 최석현 (2016). 청년 구직자의 취업 달성 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 고용 서비스 알선대상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4(3), 199-224.
- 윤혜준, 민숙원, 유한구, 금예진 (2017). 우리나라 청년 니트 현황 분석과 시사점. **KRIVET Issue Brief**, 135, 1-4.
- 이규용, 성재민, 김세움, 오상봉, 박혁, 김진영, 노대명 (2016). **사회보장제도 고용복지 분야 기본평가**(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76-0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 (2010).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진로교육 연구**, 23(1), 153-175.
- 이병희, 길현종, 김혜원, 박혁 (2014).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 개편방안**.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봉주, 남기철, 노혜진, 박호준, 이다운 (2015). **배분의제 성과지표 개발연구: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상준 (2012).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정책효과와 실업자 훈련의 잠금효과. **경제학연구**, 60(1), 33-67.
- 이철인 (2016).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39(4), 1-32.
- 전병유, 김혜원, 김용주, 이병희, 최형재, 황덕순, 장혜원, 채민희 (2012).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 고용노동부.
- 정미경, 김수란 (2013).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취업과의 관계에서 진로목표설정,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19(2), 123-144.
- 정연순, 변정현, 황여정, 宮本みち子 (2013).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정의룡 (2014). 한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1), 181-206.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김기현, 남기곤 (2008). **유휴청년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성민, 문상호, 이숙중 (2016). 청년취업 결정요인에서 본 청년 취업대책 개선책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 187-212.

Ai, C., & Norton, E. C. (2003). Interaction terms in logit and probit models. *Economics Letters*, 80(1), 123-129.

Arnett, J. J. (2006). Emerging adulthood: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coming of age.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22, 3-19.

Bell, D. N., & Blanchflower, D. G. (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241-267.

Eichhorst, W., & Rinne, U. (2017). The European youth guarantee: A preliminary assessment and broader conceptual implications. *CESifo Forum*, 18(2), 34-38.

Eissa, N., & Liebman, J. B. (1996).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2), 605-637.

Ellwood, D. T. (2000).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policy reforms on work, marriage, and living arrangement. *National Tax Journal*, 53(4), 1063-1105.

Eurofound (2012). *NEETs-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Genda, Y. (2007). Jobless youths and the NEET problem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0(1), 23-40.

Goldman-Mellor, S., Caspi, A., Arseneault, L., Ajala, N., Ambler, A., Danese, A. et al. (2016). Committed to work but vulnerable: Self-perceptions and mental health in NEET 18-year olds from a contemporary British cohor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7(2), 196-203.

Gladwell, D., Popli, G., & Tsuchiya, A. (2016). *A Dynamic Analysis of Skill Formation and NEET status* (Sheffield Economic Research Paper Series, No.

- 2015016).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Sheffield.
- Kelly, E., & McGuinness, S. (2013). The Impact of the Recession on the Structure and Labour Market Success of NEET Youth in Ireland.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48(4), 224-230.
- Nardi, B., Arimatea, E., Giunto, P., Lucarelli, C., Nocella, S., & Bellantuono, C. (2013). Not Employed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adolescents with unlawful behaviour: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Psychopathology*, 19, 42-48.
- Noh, H., & Lee, B. J. (2017). Risk factors of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in South Korea: An empirical study using panel data.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7(1), 28-38.
- Robson, K., & Team, M. C. E. (2008). Becoming NEET in Europe: A comparison of predictors and later-life outcomes. Paper presented at the Global Network on Inequality Mini-Conference.
- Rodwell, L., Romaniuk, H., Nilsen, W., Carlin, J. B., Lee, K. J., & Patton, G. C. (2018).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ural predictors of being NEET: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adul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Psychological medicine*, 48(5), 861-871.
- Schoon, I. (2014). Parental worklessness and the experience of NEET among their offspring. Evidence from the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 (LSYPE).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5(2), 129-150.
- Shinozaki, T. (2012). Not by education alone: How young adults' employment status is determined by employment environments and family backgrounds.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5(1), 31-52.
- Simões, F., Meneses, A., Luís, R., & Drumonde, R. (2017). NEETs in a rural region of Southern Europe: Perceived self-efficacy, perceived barriers,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vocational expectations. *Journal of Youth Studies*, 20(9), 1109-1126.
- Styczynska, I. (2013). Enhancing youth opportunities in employment: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48(4), 216-223.

Zuccotti, C. V., & O'Reilly, J. (2018). Ethnicity, gender and household effects on becoming NEET: An intersectional analysi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0950017017738945

부표 1

프로그램 효과: 통제모형 분석결과

		종속변수 : 니트(협의) 확률	종속변수 : 니트(광의) 확률	종속변수 : 향후 구직의향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집단 (기준: 희망플랜 미참여)	참여	0.03 (0.025)	-0.03 (0.033)	-0.03 (0.038)
시점(기준: 1차년도)	2차년도	0.00 (0.006)	-0.02 (0.010) *	0.03 (0.011) **
시점*집단	2차년도*참여	0.02 (0.029)	0.08 (0.039) *	0.05 (0.041)
성(기준: 여성)	남성	-0.01 (0.006) +	-0.05 (0.009) ***	-0.04 (0.010) ***
	19세	0.02 (0.057)	0.01 (0.112)	-0.05 (0.094)
	20세	-0.01 (0.057)	-0.03 (0.112)	-0.04 (0.093)
연령(기준:18세)	21세	-0.02 (0.057)	-0.04 (0.112)	-0.02 (0.094)
	22세	-0.02 (0.057)	-0.03 (0.113)	0.00 (0.094)
	23세	-0.01 (0.058)	-0.03 (0.113)	0.00 (0.094)
	24세	0.00 (0.061)	-0.01 (0.115)	0.03 (0.097)
교육수준	고졸이하	0.08 (0.037) *	0.03 (0.056)	-0.05 (0.066)
(기준: 중졸이하)	대재이상	0.07 (0.032) *	0.01 (0.054)	-0.02 (0.058)
수급여부	수급가구	0.03 (0.011) **	0.05 (0.016) ***	0.00 (0.018)
(기준: 일반가구)	무응답	-0.09 (0.038) *	-0.03 (0.100)	-0.19 (0.144)
가족구성	한부모	-0.01 (0.014)	-0.02 (0.019)	-0.02 (0.022)
(기준:부모동거)	조손	-0.01 (0.032)	0.00 (0.044)	0.00 (0.049)
	기타	0.00 (0.028)	0.03 (0.037)	-0.11 (0.045) *
주관적 경제상태	보통	0.00 (0.008)	0.00 (0.012)	-0.01 (0.014)
(기준: 낮음)	높음	0.00 (0.010)	0.01 (0.017)	-0.05 (0.019) *
	무응답	0.11 (0.114)	0.21 (0.218)	-0.02 (0.156)
부 근로여부	근로	0.02 (0.019)	-0.03 (0.031)	0.01 (0.035)
(기준: 비근로)	고졸	-0.04 (0.017) *	-0.05 (0.025) *	-0.01 (0.025)
부 교육수준	대재이상	-0.02 (0.017)	-0.04 (0.026)	-0.02 (0.026)
(기준: 고졸미만)	해당없음	-0.03 (0.026)	-0.10 (0.040) *	-0.01 (0.044)
	무응답	-0.03 (0.029)	0.06 (0.053)	-0.16 (0.064) *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0.01 (0.002) **	-0.03 (0.010) *	0.06 (0.012) ***
(기준: 없음)	무응답	0.34 (0.019) ***	0.24 (0.023) ***	0.01 (0.030)
직업훈련 경험	있음	-0.10 (0.013) ***	0.01 (0.021)	0.06 (0.021) **
(기준: 없음)	무응답	0.06 (0.147)	-0.08 (0.154)	-0.03 (0.281)
휴학경험(기준: 없음)	있음	0.01 (0.004) **	0.21 (0.014)	0.00 (0.014)
자아존중감		-0.01 (0.007)	-0.03 (0.011) *	0.01 (0.013)
상수		-0.10 (0.075)	0.26 (0.137) +	0.88 (0.124) ***
R^2		0.2815	0.1099	0.0544
F		21.01***	17.84***	5.16***
N		7,214	7,214	5,382

주: 반복 측정된 개인의 계열 상관을 고려하여 조정된 표준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제시함.

*** $p < .001$, ** $p < .01$, * $p < .05$, + $p < 0.1$

부표 2

지역효과: 통제모형 분석결과

		종속변수 : 니트(협의) 확률	종속변수 : 니트(광의) 확률	종속변수 : 향후 구직의향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집단 (기준: 비교지역)	사업지역	0.00 (0.021)	0.01 (0.030)	-0.04 (0.034)
시점(기준: 1차년도)	2차년도	0.01 (0.008)	-0.02 (0.016)	0.01 (0.017)
시점*집단	2차년도* 참여	-0.01 (0.011)	0.01 (0.019)	0.04 (0.022) +
성(기준: 여성)	남성	-0.01 (0.006) *	-0.05 (0.009)	-0.04 (0.010) ***
	19세	0.01 (0.059)	0.01 (0.112)	-0.05 (0.092)
	20세	-0.01 (0.059)	-0.04 (0.112)	-0.04 (0.092)
연령(기준: 18세)	21세	-0.02 (0.059)	-0.04 (0.113)	-0.02 (0.093)
	22세	-0.03 (0.059)	-0.04 (0.113)	0.00 (0.093)
	23세	-0.01 (0.059)	-0.03 (0.113)	0.00 (0.093)
	24세	-0.01 (0.062)	-0.02 (0.115)	0.03 (0.096)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이하	0.08 (0.037) *	0.03 (0.055)	-0.05 (0.066)
	대재이상	0.07 (0.032) *	0.01 (0.054)	-0.02 (0.058)
수급여부 (기준: 일반가구)	수급가구	0.04 (0.011) ***	0.06 (0.015) ***	0.00 (0.017)
	무응답	-0.09 (0.038) *	-0.02 (0.099)	-0.19 (0.143)
가족구성 (기준: 부모동거)	한부모	-0.01 (0.014)	-0.02 (0.019)	-0.02 (0.022)
	조손	-0.01 (0.032)	0.00 (0.044)	0.00 (0.049)
	기타	0.00 (0.028)	0.03 (0.037)	-0.12 (0.046) *
주관적 경제상태 (기준: 낮음)	보통	0.00 (0.008)	0.00 (0.012)	-0.02 (0.014)
	높음	-0.01 (0.010)	0.01 (0.017)	-0.05 (0.019) *
	무응답	0.11 (0.118)	0.21 (0.224)	-0.02 (0.156)
부 근로여부 (기준: 비근로)	근로	0.03 (0.019)	-0.03 (0.031)	0.00 (0.035)
	고졸	-0.04 (0.017)	-0.05 (0.025) *	-0.01 (0.025)
부 교육수준 (기준: 고졸미만)	대재이상	-0.02 (0.017)	-0.04 (0.026)	-0.02 (0.026)
	해당없음	-0.02 (0.026)	-0.09 (0.040) *	-0.01 (0.044)
	무응답	-0.03 (0.028)	0.06 (0.053)	-0.16 (0.064) *
아르바이트 경험 (기준: 없음)	있음	0.01 (0.002) **	-0.02 (0.010) *	0.06 (0.012) ***
	무응답	0.34 (0.019) ***	0.24 (0.023) ***	0.01 (0.030)
직업훈련 경험 (기준: 없음)	있음	-0.10 (0.013) ***	0.01 (0.021)	0.06 (0.021) **
	무응답	0.05 (0.145)	-0.08 (0.153)	-0.03 (0.283)
휴학경험(기준: 없음)	있음	0.01 (0.004) **	0.21 (0.014) ***	0.00 (0.014)
자아존중감		-0.01 (0.008)	-0.03 (0.011) *	0.01 (0.013)
상수		-0.09 (0.076)	0.25 (0.138) +	0.91 (0.125) ***
R^2		0.2805	0.1091	0.0547
F		21.35***	18.09***	5.3***
N		7,214	7,214	5,382

주: 반복 측정된 개인의 계열 상관을 고려하여 조정된 표준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제시함.

*** $p < .001$, ** $p < .01$, * $p < .05$, + $p < 0.1$

ABSTRACT

A preliminary assessment of a NEET youth support project: Focusing on the ‘hope plan’ project

Park, Mihee* · Lee, Bongjoo** · Noh, Hyejin*** · Park, Hoj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initial performance of the ‘Hope Plan Project’ which is a project designed to support youth in vulnerable groups. In order to do this, changes between the pre- and post-project in the probability and intentions of NEETs regarding of job seeking were analyzed using the DID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 program group has a higher job-seeking intention in the future than the non-participant group.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bability of broadly defined NEETs, the probability of the participating group was higher after the project. Third, these negative effec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robability of core NEETs, except for those young people attending school.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is study found positive effects in the initial performance of the ‘Hope Plan’. However, the fact that the broadly defined NEET probability increas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ndicated that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a lock-in-effect in this project.

Key Words: NEET, youth, performance analysis, effectiveness

투고일: 2018. 6. 11, 심사일: 2018. 8. 3, 심사완료일: 2018. 8. 13

* Research Center for Philanthropy, CCK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C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